

제9회(2024년) Reseña, 최고의 서평 대회 심사평

□ 최우수상 수상작

- 서평제목 : 실존, 내 안의 이방인과의 대화
- 도 서 명 : 변신(단편전집)

□ 심사평

올해 처음으로 서평 대회 심사를 맡으면서 새로 깨닫게 된 점이 많다.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문학적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력이 제법 뛰어난 학생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평 대회에 응모하는 학생의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운 점도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책을 가까이하며 서평 대회에도 더 적극적으로 응모하기를 기대한다.

서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책의 핵심 내용과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요령 있게 정리하는 것이다.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서평만 보고 책의 핵심 내용을 대체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어법에 맞도록 문장을 작성함으로써 가독성이 높아야 한다. 이러한 점들이 바탕이 된 다음에는 작품의 내용과 저자의 의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감상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핵심 주제 의식에 대한 깊은 고민과 비판의 흔적이 묻어날수록 서평의 수준도 더 높아질 것이다.

이번에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서평도 이러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변신>의 핵심 주제 의식을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정리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작품의 주요 내용을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독자에게 주는 시사점도 놓치지 않았다. 남다른 비판적 사고의 깊이를 가독성 높은 문장으로 간결하게 서술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사실, 대다수 학생이 <변신>을 선택하여 그보다 양도 많고 내용도 복잡한 다른 작품을 선택한 서평에 가산점을 주려 했지만, 위에서 설명한 서평의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서평이라고 판단되어 본 서평에 최고점을 주었다.

2024. 10. 24.

심사위원 일동(대표: 이원준 교수)